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국제부
발신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 (19개 단체)
(담당: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010-5574-8925, khis21@hanmail.net, 사단법인 아디 이동화 010-9947-9920, dh.lee@adians.net)
제목 [보도협조] 로힝야 학살 7주기 미얀마 군부 규탄 기자회견 및 추모제 개최
날짜 2024. 08. 22. (총 3쪽)

보도협조요청서

로힝야 학살 7주기 미얀마 군부 규탄 기자회견 및 희생자 추모 천도제 개최

- 기자회견: 2024. 8. 23.(금) 오전 10시 30분, 주 미얀마대사관 인근 일신빌딩 앞
- 추모 천도제: 2024. 8. 23.(금) 오후 2시, 중랑구 법장사

1. 취지와 목적

- 2017년 8월 25일, 미얀마 정부와 군부는 수십년 동안 박해했던 로힝야인들을 대상으로 집단학살을 자행했다. 이로 인해 로힝야인 수만명이 학살당했고, 수십만명이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되었다. 그리고 집단학살의 주범인 미얀마 군부는 집단학살에 대한 처벌은 커녕 쿠데타로 다시 정권을 탈취하여 현재까지 미얀마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
- 7년이 지난 지금, 로힝야인들의 삶은 더욱 절망적이다. 미얀마에 남아 있는 로힝야인들은 미얀마 군부와 지역 무장세력 아라칸군 간의 교전에 갇혀 양측으로부터 무차별적 공격을 받고 있고, 방글라데시에 피난한 100만명에 이르는 로힝야 난민들 역시 극심한 인도주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미얀마 군부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과 로힝야인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로힝야인들의 절망과 고립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 다가오는 8월 23일은 로힝야인 집단 학살 7주기가 되는 시점이다. 이에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19개 단체는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과 추모 행사를 개최하고자 한다. 기자회견을 통해 로힝야 집단학살의 주범인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며 한국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추모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은 로힝야 희생자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함께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2. 행사 개요 1_기자회견

- 제목 : 로힝야 학살 7주기 미얀마 군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4년 8월 23일(금) 오전 10시 30분, 주한 미얀마 대사관 인근 일신빌딩(한남대로 98) 앞
- 주최 :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 (19개 단체)
- 프로그램
 - 사회_나현필 /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집단학살로 희생된 로힝야인들을 위한 추모
 - 발언 1_박상훈 신부 / 사단법인 아디 대표
 - 발언 2_여암 스님 / 실천불교승가회 사무처장
 - 발언 3_강인남 대표 / 해외주민운동연대 대표
 - 발언 4_파티마 이삭 / 한국 거주 로힝야 난민
 - 발언 5_한림세영 활동가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3. 행사 개요 2_추모행사

- 제목 : 로힝야 인종학살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 천도제
- 일시·장소 : 2024년 8월 23일(금)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법장사(숙선옹주로 69)
- 주관 : 실천불교승가회
- 프로그램
 - 천수경 봉독
 - 상단예불
 - 정근(지장보살정근)
 - 축원
 - 관음시식
 - 내빈소개
 - 참석자 인사
 - 추도사
 - 폐회

4. 참여단체의 명단과 성명서는 당일 기자회견시에 배포합니다. 귀 언론사의 보도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